

# 성소를 위한 기도

| 과테말라 |

며칠 전 본당의 헌금을 주기적으로 저금하는 마을의 은행 출장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정한 금액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입금되고 있는데, 혹시 마약 거래를 하여 돈세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화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의 헌금이 입금되는 것을 보고 마약 거래로 의심하는 모습이 황당하여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마약에 노출되어 있기에 그러한 의심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씁쓸하였습니다. 문득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라는 고사성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단순히 맹자의 어머니처럼 교육 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과테말라에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과테말라에서 살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사제의 부족'과 '성소의 필요성'입니다. 워낙 사제가 부족하다 보니 어떤 날은 혼자서 하루에 미사를 7대나 드리기도 합니다. 장례미사가 동시에 겹쳐서 한 번에 세 분의 시신을 모시고 미사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한 장례미사를 드려야 하는데 본당 신부가 미사를 집전할 수 없는 경우, 신자들이 직접 신부를 찾아 마을을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해성사 역시, 사순 시기에만 딱 한 번 판공성사를 드립니다. 워낙 신자들이 많다 보니 지역에 속한 30여 명의 신부들이 사순 시기 동안 매일매일 정해진 본당에 가서 판공성사를 도와줍니다. 이때가 아니면 고해성사를 보기가 힘든 만큼 많은 신자가 성당으로 찾아옵니다. 심지어 규모가 큰 본당은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판공성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해성사를 드리

는 신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사제의 부족으로 인해 신자들이 평소에 성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지속적으로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성적으로 개방된 과테말라의 환경 속에서 어쩌면 '사제의 부족'이라는 현실이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바로 '성소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소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소중하게 키워온 성소의 씨앗을 신학교라는 모판에 옮겨 심어, 많은 신부님의 정성 어린 보살핌과 양성 교육 그리고 본당의 많은 신자의 기도와 사랑 안에서 한 사제가 태어나는 훌륭한 환경이, 결코 한국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본당에서 매일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우리만의 행복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사제를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제의 부족으로 성사 생활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음에도 환경적인 이유로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성소 주일을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성소 주일을 기념하는 오늘, 온 세상의 사제 성소와 수도자 성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사제들이 착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청해봅니다.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 과테말라 선교

서울대교구 해외선교봉사국(국장 박규홍 베네딕도 신부) 산하 단체인 해외선교후원회는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고 있는 22명의 서울대교구 소속 선교 사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세계 곳곳의 이웃들과 그들 곁에서 맘 흘리고 있는 선교 사제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후원 문의: 727-2407, 2409 | 후원 계좌: 우리은행 454-035571-13-101 (재)천주교서울대교구 | 홈페이지: <http://mission.catholic.or.kr>
- 후원 미사: 매월 첫째주(목),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특강 및 월례미사: 5월3일(목) 14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양호 바오로 신부, 콜롬비아 한인 선교)